

中國語 音韻體系 變化 過程에 反映된 撮口呼의 形成 過程 研究*

裴銀漢**

◁ 목 차 ▷

- I. 緒言
 - II. 撮口呼 形成 過程 研究의 着眼點
 - III. 撮口呼 形成 關聯 先行研究 分析
 - IV. 居·孤字母韻과 魚·模韻의 關係
 - V. 結語
-

I. 緒言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韻母 分類방식은 開口呼·齊齒呼·合口呼·撮口呼의 四呼分類法이 通用되고 있다. 四呼 중에서 前高圓脣母音 [y]가 介音이나 主要母音으로 구성된 韻母는 撮口呼로 分類된다. 즉, 撮口呼를 특징짓는 音素는 前高圓脣母音 [y]이다. 그러므로 中國語 語音 發展史에서 撮口呼의 형성 문제는 音素 [y]의 형성과 동일한 문제로 간주된다. 撮口呼의 형성은 中古漢語 시기에 開口呼와 合口呼 그리고 一·二·三·四等의 兩呼四等으로 分類되던 韻母體系에서, 近代漢語 이후에 開·齊·合·撮의 四呼分類法으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하는 韻母體系의 대표적인 音韻變化 現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王力(1980)에서는 中古漢語의 韻母를 介音과 主要母音의 차이에 따라 分類하고, 山攝의 等呼 分類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推定音(再構音)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2786).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교수.

開口一等的元音是[a], 二等是[an], 三等是[iæn], 四等是[ien]: 合口一等是[uan], 二等是[uan], 三等是[iuæn], 四等是[iuen]。

(開口一等的母音은 [a]이고, 開口二等은 [an], 開口三等은 [iæn], 開口四等은 [ien]이다. 合口一等은 [uan], 合口二等은 [uan], 合口三等은 [iuæn], 合口四等은 [iuen]이다.)¹⁾

이처럼 中古漢語 시기의 韻類는 開合 兩呼가 각각 一二三四等으로 나뉘어 兩呼四等的 8종으로 구분되었다는 견해가 현행 학계의 통설이다. 이러한 中古漢語의 韻類 체계는 近代漢語 이후에 一等과 二等 그리고 三等과 四等 사이의 차이가 모호해지면서, 一等과 二等은 洪音으로, 三等과 四等은 細音으로 통합되어 開口洪音·開口細音·合口洪音·合口細音의 4종으로 재분류되었다. 章炳麟(1936)에서 는 開口와 合口, 洪音과 細音의 조합이 각각 開齊合撮의 四呼에 대응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開合之音, 各有洪細. 開口洪音爲開口, 細音爲齊齒; 合口洪音爲合口, 細音爲撮口。

(開口와 合口의 발음에는 각각 洪音과 細音의 구분이 있다. 開口洪音은 開口呼가 되고, 開口細音은 齊齒呼가 된다. 合口洪音은 合口呼가 되고, 合口細音은 撮口呼가 된다.)²⁾

章炳麟(1936)과 王力(198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中古漢語 시기의 兩呼四等 韻母體系와 近代漢語 이후 開·齊·合·撮의 四呼分類法은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로 나타난다.

- 1) 王力(1980), 〈漢語語音의 系統性及其發展的規律性(下)〉, 《社會科學戰線》, 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 1980年第2期, p.334. 본 인용문의 “開口一等的元音是[a] (開口一等的母音은 [a]이다.)”라는 서술은 전체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iæn], [ien], [uan], [uan], [iuæn], [iuen] 등의 推定音 형식에 비추어 볼 때, 元音(母音)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韻母 자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開口一等的韻母是[an] (開口一等的韻母는 [an]이다.)”로 수정되어야 타 예시와 서술 형식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章炳麟(1936), 《小學略說》(《梁啓超·章太炎解讀中華文化經典》), 沈陽: 遼海出版社, 2003年, p.175)

兩呼四等				四呼分類法	
開合	洪細	等呼	音素(介音 / 主要母音)	名稱	音素
開口 [ø]	洪音[ø]	開口一二等	[i] · [u] · [y] 이외의 기타 母音	開口呼	[ø]
	細音[i]	開口三四等	[i]	齊齒呼	[i]
合口 [u]	洪音[ø]	合口一二等	[u]	合口呼	[u]
	細音[i]	合口三四等	[i] + [u] ⇒ [iu] ⇒ [y]	撮口呼	[y]

상기 표에 제시된 대응관계와 같이, 中古漢語 시기의 兩呼四等 韻母體系에서 近代漢語 이후에는 四呼分類法으로 변화하였다는 견해는 현행 학계에서 정설로 수용된다. 하지만, 開·齊·合·撮의 四呼分類法이 정립된 구체적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인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四呼 정립의 관건은 撮口呼의 형성이며, 撮口呼는 前高圓脣母音 [y]의 형성과 일맥상통하는 音韻 특징으로 귀납된다. 즉, 中古漢語 시기에 [i]와 [u]의 合音 형태로 구성되었던 介音 [iu]가 단일 音素인 [y]로 변화한 것이 바로 撮口呼의 형성이라는 四呼 韻類體系的 정립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현행 학계에서는 音素 [y]의 형성 시기에 대하여 寧繼福(1985)과 何九盈(1995) 등에서 제기된 15세기 《韻略易通》의 居魚韻과 呼模韻 分立을 撮口呼 형성의 확실한 근거로 간주하는 견해를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趙蔭棠(1936)과 王力(1985) 등의 14세기 초 《中原音韻》시기 설, 陸志韋(1946)와 金基石(2004,2007) 등의 17세기 《五方元音》시기 설, 정영지(2004)와 萬獻初(2011) 등의 14세기 중엽 《洪武正韻》시기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의 다양한 견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撮口呼의 표지인 音素 [y]의 형성 기제를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어떤 자료에서부터 前高圓脣母音 [y]가 단일 音素로 정립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撮口呼의 형성으로 四呼 체계가 정립된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撮口呼 形成 過程 研究의 着眼點

역대 학계의 연구 성과에서 ‘開口·齊齒·合口·撮口’ 등의 명칭과 분류 방식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주요 연구 자료로는 [明]桑紹良 《青郊雜著》(1581), [明]李登 《書文音義便考私編》(1587), [明]梅膺祚 《字彙》에 부록으로 수록된 《韻法直圖》 《韻法橫圖》(1612년 이전), [清]朴隱子 《詩詞通韻》(1685) 및 [清]潘耒 (1648-1708) 《類音》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에서는 이러한韻書 및韻圖 자료의 기재 사항을 근거로撮口呼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³⁾

한편, 四呼의 명칭과 분류 방식의 정립에 대한 분석과는 별도로, 中古漢語 시기의 介音 [iu]⁴⁾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단일 音素인 [y]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여전히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中古漢語 시기의 介音 [iu]가 近代漢語 이후에는 [y]로 변화함으로써 介音體系가 [i]·[u]·[iu]에서 [i]·[u]·[y]로 전환되었고, 撮口呼의 형성과 더불어 兩呼四等의 분류법을 대신하여 四呼分類法이 정립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두드러진 이견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介音 이외에 韻部 측면에서는, 中古漢語 魚·虞·模 세 韻部の 音韻變化 결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193韻 체계의 《切韻》(601) 이후에 《廣韻》(1008), 《集韻》(1037), 《增修互注禮部韻略》(1223) 등 206韻 계열의 韻書에서는 魚·虞·模 세 韻部를 각각 독립된 韻部로 분류하였다. 中古漢語 後期에 이르러 《廣韻》音系の 獨用과 同用(通用) 활용법에 따라 韻部를 106韻(혹은 107韻)으로 병합한 《平水新刊韻略》(1229), 《壬子新刊禮部韻略》(1252) 등 소위 平水韻 계열의 韻書에서도 魚韻은 여전히 독립된 韻部로 유지되었지만, 虞韻과 模韻은 同用(通用) 원칙에 따라 하나의 韻部로 통합되었다.

平水韻 계열의 韻書 이후 《古今韻會舉要》(1297)에서는 魚韻 독립과 虞·模韻 통합의 韻部體系는 平水韻과 동일하지만, 字母韻⁵⁾으로 韻類를 구분한 방식에 근

3) 임동석(1991), 정영지(2004), 金基石(2007), 이경철(2009), 萬獻初(2011), 曲曉雲(2014) 등 참고.

4) 현행 중국어 音節 구조의 분석법에 근거하면, [i]와 [u] 두 개의 音素가 결합된 형태인 [iu]를 介音(韻頭)이라는 단일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唐作藩(1987)은 古代漢語에서 音素 [i]와 [u]가 각각 介音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音素가 결합한 [iu]도 介音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王力(1980)의 推定音 [iuæn]과 [iuen]에서도 主要母音 [æ]와 [e]의 앞에 위치한 [iu]는 介音으로 분석된다.

거하여 中古漢語 魚·虞·模 세 韻部에 해당하는 第六韻(魚獨用)과 第七韻(虞與模通)의 각 小韻을 ‘居’字母韻과 ‘孤’字母韻으로 재분류하였다. ‘居’字母韻과 ‘孤’字母韻의 분류는 《古今韻會舉要》의 卷頭に 수록된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考〉에서 “蒙古字韻音同”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失傳된 것으로 여겨지는 原本 《蒙古字韻》의 분류체계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中古漢語 시기의 魚·虞·模 세 韻部가 元代에 이르러 《古今韻會舉要》와 《蒙古字韻》에서 [y]계열의 ‘居’字母韻과 [u]계열의 ‘孤’字母韻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撮口呼의 표지인 音素 [y]의 형성을 의미하는 명확한 증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대상이기도 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寧繼福(1985)과 何九盈(1995) 등을 비롯한 현행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15세기 중엽 《韻略易通》의 韻部體系에서 《中原音韻》의 魚模韻을 居魚韻과 呼模韻의 두 韻部로 분류한 현상을 撮口呼 형성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洪武正韻》에서 魚韻과 模韻으로 분류한 현상과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孤’字母韻 分立 역시 표면적으로는 《韻略易通》의 [y]계열 居魚韻과 [u]계열 呼模韻 分立에 일치하는 양상으로 간주되므로, 14세기 중엽 明初의 《洪武正韻》과 13세기 말엽의 《古今韻會舉要》韻類體系에 대한 검증은 音素 [y]와 撮口呼의 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추정된다.

撮口呼 音素 [y]의 형성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古今韻會舉要》와 《洪武正韻》의 音韻體系 분석 결과는 기존 학계의 통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방안으로는, 우선 《古今韻會舉要》에서 第六韻(魚獨用)과 第七韻(虞與模通)의 각 小韻을 [y]계열로 추정되는 ‘居’字母韻과 [u]계열로 추정되는 ‘孤’字母韻으로 서로 교차하며 韻類를 구분한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부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와 같이 《洪武正韻》에서 [y]계열로 추정되는 魚韻과 [u]계열로 추정되는 模韻의 韻部 分立 현상이 撮口呼 音素 [y]의 형

5) 字母韻: 《古今韻會舉要》에서는 107韻에 수록된 小韻을 개별 韻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韻을 포괄하여 韻類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각 韻에 수록된 小韻 중에서 동일한 韻母에 속하는 小韻들을 각각의 字母韻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第六韻(魚韻)의 小韻 중에서 ‘居·墟·渠·魚……’ 등과 第七韻(虞模韻)의 ‘拘·區·勛·虞……’ 小韻 등을 ‘居’字母韻으로 분류하였고, 第七韻(虞模韻)의 小韻 ‘孤·枯·吾·都……’ 등과 第六韻(魚韻)의 ‘初·蔬·鉅’ 小韻을 ‘孤’字母韻으로 분류하였다.

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행 학계에서 15세기 중엽 《韻略易通》의 居魚韻과 呼模韻 두 韻部의 分立 현상을 撮口呼 형성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音素 [y]와 撮口呼의 형성 과정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撮口呼 形成 關聯 先行研究 分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견해에 따르면, 撮口呼 音素 [y]의 형성 시기를 반영하는 韻書 자료로는 14세기 초엽의 《中原音韻》을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와 14세기 중엽의 《洪武正韻》, 15세기 중엽의 《韻略易通》, 17세기 중엽의 《五方元音》을 근거로 하는 견해 등 크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趙蔭棠(1936)에서는 《中原音韻》의 韻類와 等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小韻의 韻母를 國際音聲符號(IPA)로 注音하면서, 東鐘韻·江陽韻·魚模韻·眞文韻·先天韻·車遮韻·庚青韻 등에서 일부 韻類를 撮口呼로 분류하여 각각 [yŋ]·[yaŋ]·[y]·[yn]·[yən]·[yɛ]·[yŋ(yəŋ)] 등으로 표기하였다.⁶⁾ 이러한 趙蔭棠(1936)의 견해에 따르면, 撮口呼가 형성된 시기는 《中原音韻》(1324)에 반영된 것처럼 14세기 초 이전이 된다. 王力(1985)에서도 《中原音韻》을 근거로 元代音系를 분석하면서, 齊微韻·眞文韻·先天韻·車遮韻·庚青韻 등에서 일부 韻類를 撮口呼로 분류하고 각각 [yi]·[yən]·[yæn]·[yæ]·[yəŋ] 등으로 注音하였다.⁷⁾

이처럼 元代 《中原音韻》의 韻母體系를 撮口呼가 구비된 開·齊·合·撮의 四呼로 분류한 趙蔭棠(1936)과 王力(1985)의 견해가 제기된 후, 학계의 후속연구에서는 《中原音韻》魚模韻 細音의 분류 문제와 音價 推定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6) 趙蔭棠, 《中原音韻研究》, 上海: 商務印書館, 中華民國二十五年二月(1936年2月), 初版, pp.118-298.

7)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王力文集》第10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7年12月, 第1版, pp.392-470).

진행되었다. 陸志韋(1946)에서는 魚模韻 細音의 推定音을 [iu]로 제시하면서, [y]로 推定한 견해에 대하여 지나치게 現代音과 유사하게 推定하였음을 비판하였다.⁸⁾ 寧繼福(1985)도 《中原音韻》에서 撮口呼 音素 [y]가 형성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y]가 형성된 시기를 《韻略易通》(1442) 이후로 추정하였다.⁹⁾ 寧繼福(1985)과 마찬가지로 何九盈(1995: 212) 역시 《韻略易通》에서 《中原音韻》의 魚模韻을 居魚韻과 呼模韻으로 분리한 사실을 [y]가 형성된 증거로 간주하였다.

撮口呼 音素 [y]의 형성 시기에 관하여 근래 학계에서도 새로운 연구 방법과 결론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金基石(2004, 2007)과 정영지(2004), 萬獻初(2011) 등의 견해를 꼽을 수 있다.

金基石(2004, 2007)은 《洪武正韻譯訓》(1455), 《老乞大·朴通事診解》(1516), 《四聲通解》(1517), 《漢清文鑑》(1776), 《朴通事新釋診解》(1795), 《重刊老乞大診解》(1795) 등 朝鮮時代의 譯音·對音資料와 中國語 學習 教材에 표기된 魚韻의 注音 “ㄲ·ㄱ·ㄱ”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音素 [y]가 형성된 시기를 《五方元音》이 반영하고 있는 17세기경으로 추정한 陸志韋(1946)의 견해를 수용하였다.¹⁰⁾

한편, 萬獻初(2011)에서는 110여 종에 달하는 방대한 문헌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四呼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 특히 明清時期의 韻書와 韻圖 등 문헌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四呼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증을 토대로, 14세기 중엽 《洪武正韻》(1375)의 音韻體系에서 魚韻과 模韻을 분류한 사실이 바로 撮口呼의 표지인 音素 [y]의 정립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였다.

8) 陸志韋, 〈釋《中原音韻》〉, 《燕京學報》第31期, 1946 (《陸志韋近代漢語音韻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1988年1月, 第1版, p.21): “魚虞的變音這裏作 iu。……然而其時的魚虞斷不象是已經單元音化了的。有人把他擬成 y, 正像 Dragunov 把八思巴音的魚虞擬成 ü, 太近乎今音。”

9) 寧繼福, 《中原音韻表稿》,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5年6月, 第1版, p.225): “魚字讀 y, 大概要到《韻略易通》的時候。蘭茂把魚模韻分爲居魚、呼模兩韻, 居魚的韻母是 -y, 呼模是 -u。《中原音韻》無 y韻母, 也沒有 y介音。”

10) 金基石 〈近代音的熱點問題與朝鮮對音文獻的價值〉, 《延邊大學學報》, 2004年第6期, pp.83-89.; 〈漢語[y]韻母與朝鮮文獻的對音〉, 《民族語文》, 2007年 第1期, pp.56-60.

從音韻內容的分析可以推定, 今見文獻中明初《洪武正韻》(1375)“魚[y]—模[u]”兩韻對立標志着撮口呼完全獨立, 《韻略易通》(1442)“居魚[y]—呼模[u]”分立是其後續……。

(음운체계의 분석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문헌 중에서 명초 《洪武正韻》(1375)의 “魚[y]”韻과 “模[u]”韻의 대립 현상은 찰구호가 완벽하게 독립적인 요소로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韻略易通》(1442)에서 “居魚[y]”韻部와 “呼模[u]”韻部를 분류한 것은 이를 계승한 것이다……)11)

萬獻初(2011)에서는 현행 학계의 통설로 인식되고 있는 ‘15세기 중엽 《韻略易通》설’을 수용하지 않고, 14세기 중엽 《洪武正韻》에서 魚韻과 模韻을 분류한 사실이 撮口呼 형성의 확증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萬獻初(2011)보다 앞선 시점에 발표된 정영지(2004)에서도 《洪武正韻》의 魚·模韻 分立 현상을 撮口呼 형성의 근거로 간주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명초의 《洪武正韻》과 《韻略易通》에서는 魚韻과 模韻을 나누었는데, 이는 魚韻의 [iu]가 [y]로 변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도 개음 [y]가 이 때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12)

이처럼 萬獻初(2011)와 정영지(2004)에서 《洪武正韻》의 魚·模韻 分立이라는 韻部體系를 音素 [y]의 형성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을 지니는 견해로 보이지만, 단지 표면적인 韻部體系의 分立 양상에만 근거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된다. 우선 정영지(2004)에서 제시된 견해는 《洪武正韻》의 魚·模韻 分立과 《韻略易通》의 居魚·呼模韻 分韻體系를 동일시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도 개음 [y]가 이 때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여, 근거가 불분명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논거를 제시하였다. 사실 《韻略易通》의 居魚·呼模韻 分韻體系가 개음 [y] 즉 撮口呼의 형성 근거임은 학계에서 공인된 견해로 수용되고 있지만, 《洪武正韻》의 魚·模韻 分韻體系를 撮口呼의 형성 근거로 인정하는 시각은 정영지(2004)에서 주장한 바와

11) 萬獻初, 〈撮口呼形成、發展與應用的歷時進程〉, 《勵耘學刊(語言卷)》, 北京: 北京師範大學文學院, 2011年第1期, p.171.

12) 정영지, 〈四呼의 名稱考〉, 《언어과학연구》 30집, 2004年, p.322.

같이 “많은 학자들”이 공인하는 견해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이처럼 구체적인 音韻體系에 대한 분석 없이 표면적인 分韻體系에 근거한 논지 전개는 설득력이 결여된 추론으로 사료된다.

이상 선행연구 성과의 각종 결론에서, 撮口呼 音素 [y]의 형성 시기를 반영하는 韻書 자료로는, 14세기 초엽의 《中原音韻》, 14세기 중엽의 《洪武正韻》, 15세기 중엽의 《韻略易通》, 17세기 중엽의 《五方元音》 등 크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中原音韻》의 韻部體系를 撮口呼의 형성 근거로 간주하는 견해는 이론적인 근거와 자료적인 면에서 합당한 결론으로 간주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17세기 중엽의 《五方元音》에 이르러서야 撮口呼가 형성되었다는 견해 역시 앞선 시기의 《韻略易通》에 반영된 명확한 근거로 인해 널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석결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거듭 강조되는 바와 같이, 현행 학계에서 대다수의 견해는 15세기 중엽 《韻略易通》에서 居魚韻과 呼模韻을 分立한 현상을 撮口呼 형성의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靑郊雜著》(1581)나 《書文音義便考私編》(1587) 등에 근거하여 추정된 시기보다는 앞선 분석 결과가 된다. 하지만 정영지(2004)와 萬獻初(2011)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14세기 중엽의 《洪武正韻》 韻部體系에서 魚韻과 模韻의 分立이 명확한 근거로 인정된다면, 현행 학계의 보편적인 결론을 수정할 수 있는 연구 결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석 대상으로는 13세기 말엽의 《古今韻會舉要》의 韻類體系에 반영된 音素 [y]의 형성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古今韻會舉要》의 韻類體系와 音素 [y], 즉 撮口呼 형성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V. 居·孤字母韻과 魚·模韻의 關係

中古漢語 시기의 魚·虞·模 세 韻部에 원류를 두고 있는 《洪武正韻》의 魚韻과 模韻, 그리고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과 ‘孤’字母韻 分立 현상에 대한 분석은, 音素 [y]와 撮口呼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漢語音韻學史의 미결 현안에 합리적이고 정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 대상으

로 기대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撮口呼의 표지인 音素 [y]의 형성에 대한 현행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15세기 중엽 《韻略易通》의 韻部體系에서 《中原音韻》의 魚模韻을 居魚韻과 呼模韻으로 分立한 현상을 音素 [y]의 형성, 즉 撮口呼 형성의 명확한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中原音韻》에서 洪音인 [u]계열과 細音인 [iu]계열을 포괄하는 魚模韻이, 《韻略易通》에서는 介音뿐만 아니라 主要母音의 차별성에 근거하여 居魚韻과 呼模韻의 서로 다른 韻部로 양분된 것이므로, [y]계열 居魚韻과 [u]계열 呼模韻의 分立이라는 관점에서 音素 [y]의 형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韻略易通》보다 이른 시기인 13세기 말엽의 《古今韻會舉要》와 14세기 중엽의 《洪武正韻》에서도 동일한 구도의 韻類 구분이 실현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古今韻會舉要》와 《洪武正韻》의 韻類 분석을 중심으로 撮口呼 音素 [y]의 형성 과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안으로는, 《古今韻會舉要》에서 第六韻(魚獨用)과 第七韻(虞與模通)의 각 小韻을 [y]계열로 추정되는 '居'字母韻과 [u]계열로 추정되는 '孤'字母韻으로 재분류하여 韻類를 구분하였던 사실과, 《洪武正韻》에서 [y]계열로 추정되는 魚韻과 [u]계열로 추정되는 模韻의 韻部 分立 현상이 撮口呼 音素 [y]의 형성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현행 학계에서 《韻略易通》의 居魚韻과 呼模韻 分立을 撮口呼 형성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音素 [y]와 撮口呼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中古漢語의 魚·虞·模 세 韻部는 《廣韻》音系에서 虞韻·模韻은 '同用(通用)'으로, 魚韻은 '獨用'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韻部 활용 방안에 따라 《平水新刊韻略》(1229)과 《壬子新刊禮部韻略》(1252)에 반영된 平水韻 계열의 韻部體系에서 魚韻은 여전히 독립된 韻部로 유지되었지만, 虞韻과 模韻은 同用(通用) 원칙에 따라 하나의 韻部로 통합되었다. 平水韻 이후의 《古今韻會舉要》에서도 虞韻과 模韻은 합병되어 있고 魚韻은 分立되어 있다. 하지만 《古今韻會舉要》의 第六韻(魚獨用)과 第七韻(虞與模通)에서는 '居'字母韻과 '孤'字母韻으로 韻類 분류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인 韻部體系는 切韻系韻書의 체계를 답습

하고 있지만, 실제 音韻體系를 반영하는 韻類의 구분에서는 字母韻의 형식으로 당시 실제 발음에 근거한 音韻變化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中古漢語 魚·虞·模 세 韻部의 分併을 구현한 《洪武正韻》의 魚韻과 模韻의 分立은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孤’字母韻 분류와 표면적인 韻類 구분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영지(2004)와 萬獻初(2011)에서는 《洪武正韻》의 魚·模韻 分立만을 撮口呼 형성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孤’字母韻 분류 현상은 撮口呼 형성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萬獻初(2011)는 《中原音韻》(1324)의 韻母體系에서 撮口呼 韻母의 존재를 추정한 趙蔭棠(1936)과 王力(1985) 등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古今韻會舉要》(1297)의 ‘居’字母韻·‘孤’字母韻 분류 현상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中原音韻》보다 이전이라는 단순 논리에 근거하여 撮口呼 형성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古今韻會舉要》比 《中原音韻》成書早27年(《古今韻會》更早), 字母韻“孤”與“居”的分列也應是 u, iu 對應而不是 u, y 對立。

(《古今韻會舉要》는 《中原音韻》보다 27년 먼저 간행되었으므로 《古今韻會》는 더욱 더 이른 시기이다.), ‘孤’字母韻과 ‘居’字母韻의 분류 현상은 당연히 [u]와 [iu]의 대응관계이지 [u]와 [y]의 대립관계가 아니다.)¹³⁾

위의 註11)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萬獻初(2011:171)에서는 《洪武正韻》의 魚韻과 模韻 分立을 각각 [y]와 [u]의 대립관계로 간주하여 撮口呼 형성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되는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과 ‘孤’字母韻 분류에 대해서는 단지 《中原音韻》보다 이전이라는 시기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y]와 [u]의 대립관계가 아닌 [iu]와 [u]의 대응관계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물론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과 ‘孤’字母韻 분류 현상과 《洪武正韻》의 魚韻과 模韻 分立 현상이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유사성일 뿐인지, 아니면 音韻體系의 동질성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古今韻會舉要》의 韻母體系에 대한 推定音에서 音素 [y]를 介音과 主

13) 萬獻初, 〈撮口呼形成、發展與應用的歷史進程〉, 《勵耘學刊(語言卷)》, 北京: 北京師範大學文學院, 2011年第1期, p.150.

要母音으로 제시하기도 하고,¹⁴⁾ 혹은 《洪武正韻》의 推定音에서 音素 [y]를 설정하지 않고 [iu]로 대체한 경우도 있다.¹⁵⁾ 하지만 이러한 推定音의 설정은 개인적인 관점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로 구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지 특정 연구 성과의 推定音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자료의 音韻體系 분포 양상과 구성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古今韻會舉要》의 ‘居’·‘孤’字母韻 분류 현상과 《洪武正韻》의 魚·模韻 分立 현상 사이의 대응관계를 분석하면, 정영지(2004)와 萬獻初(2011)에서 撮口呼 형성의 근거로 제시된 《洪武正韻》의 魚·模韻 分立 현상과 더불어 《古今韻會舉要》의 ‘居’·‘孤’字母韻 분류 현상이 撮口呼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古今韻會舉要》의 ‘居’·‘孤’字母韻과 《洪武正韻》의 魚·模韻에 수록된 小韻의 분포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상이한 두 韻書의 音韻體系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古今韻會舉要》의 第六韻(魚獨用)과 第七韻(虞與模通)에 분류된 ‘居’字母韻과 ‘孤’字母韻의 각 小韻은 다음과 같다.

‘居’字母韻

第六韻(魚獨用): ①居 ②墟 ③渠 ④魚 ⑤苴 ⑥疽 ⑦胥 ⑧徐 ⑨諸 ⑩豬 ⑪攄
⑫書 ⑬除 ⑭榘 ⑮於 ⑯虛 ⑰余 ⑱臚 ⑲如 ⑳菹

第七韻(虞與模通): ①拘 ②區 ③劬 ④虞 ⑤于 ⑥諏 ⑦趨 ⑧須 ⑨朱 ⑩株 ⑪樞
⑫羆 ⑬輪 ⑭廚 ⑮殊 ⑯紆 ⑰訐 ⑱兪 ⑲悽 ⑳儒

‘孤’字母韻

第六韻(魚獨用): ①初 ②蔬 ③鉏

第七韻(虞與模通): ①孤 ②枯 ③吾 ④都 ⑤稌 ⑥徒 ⑦奴 ⑧逋 ⑨鋪 ⑩蒲 ⑪模
⑫膚 ⑬敷 ⑭扶 ⑮無 ⑯租 ⑰麤 ⑱蘇 ⑲徂 ⑳芻 ㉑氈 ㉒雛
㉓烏 ㉔呼 ㉕胡 ㉖盧

14) 竺家寧, 《古今韻會舉要的語音系統》,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年.

15) 葉寶奎, 《明清官話音系》,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2001年.

《洪武正韻》의 魚韻과 模韻에 수록된 各 小韻은 다음과 같다.¹⁶⁾

- 魚韻: ①魚 ②于 ③於 ④虛 ⑤區 ⑥居 ⑦渠 ⑧胥 ⑨疽 ⑩徐 ⑪書 ⑫諸 ⑬除
 ⑭殊 ⑮如 ⑯榘 ⑰樞 ⑱閫 ⑲趨
- 模韻: ①模 ②鋪 ③逋 ④租 ⑤徂 ⑥蒲 ⑦都 ⑧徒 ⑨盧 ⑩奴 ⑪胡 ⑫孤 ⑬枯
 ⑭呼 ⑮吾 ⑯麤 ⑰烏 ⑱蘇 ⑲初 ⑳蔬 ㉑敷 ㉒扶 ㉓無

본고의 분석 결과, 위에 열거된 各 小韻 중에서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은 《洪武正韻》의 魚韻과 대응되고, ‘孤’字母韻은 模韻과 대응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居’字母韻의 小韻과 魚韻의 小韻 사이에 대응하는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古今韻會舉要》居字母韻	《洪武正韻》魚韻
① 居	⑥ 居
② 墟	⑤ 區 (韻字:墟)
③ 渠	⑦ 渠
④ 魚	① 魚
⑤ 苴	⑨ 疽 (韻字:苴)
⑥ 疽	⑨ 疽
⑦ 胥	⑧ 胥
⑧ 徐	⑩ 徐
⑨ 諸	⑫ 諸
⑩ 豬	⑫ 諸 (韻字:豬)
⑪ 攄	⑰ 樞 (韻字:攄)
⑫ 書	⑪ 書
⑬ 除	⑬ 除
⑭ 榘	⑯ 榘
⑮ 於	③ 於
⑯ 虛	④ 虛
⑰ 余	② 于 (韻字:余)
⑱ 臚	⑱ 閫 (韻字:臚)
⑲ 如	⑮ 如
⑳ 蒞	⑨ 疽 (韻字:蒞)

16) 四聲相配의 배열 원칙에 따라 平聲의 ‘魚’韻은 上聲의 ‘語’韻, 去聲의 ‘御’韻과 상응하여 韻部를 구성하며, 平聲의 ‘模’韻은 上聲의 ‘姥’韻, 去聲의 ‘暮’韻과 韻部를 구성한다. 서술상의 편의에 따라 ‘魚’韻部와 ‘模’韻部를 통상 ‘魚’韻과 ‘模’韻으로 지칭한다. 본고의 小韻 분석은 平聲의 ‘魚’韻과 ‘模’韻을 대상으로 한다.

第七韻 (虞與模通)	① 拘	⑥ 居 (韻字:拘)
	② 區	⑤ 區
	③ 劬	⑦ 渠 (韻字:劬)
	④ 虞	① 魚 (韻字:虞)
	⑤ 于	② 于
	⑥ 諏	⑨ 疽 (韻字:諏)
	⑦ 趨	⑲ 趨
	⑧ 須	⑧ 胥 (韻字:須)
	⑨ 朱	⑫ 諸 (韻字:朱)
	⑩ 株	⑫ 諸 (韻字:株)
	⑪ 樞	⑰ 樞
	⑫ 獮	⑰ 樞 (韻字:獮)
	⑬ 輸	⑪ 書 (韻字:輸, 鈺)
	⑭ 廚	⑬ 除 (韻字:廚)
	⑮ 殊	⑭ 殊
	⑯ 紆	③ 於 (韻字:紆)
	⑰ 訃	④ 虛 (韻字:訃)
	⑱ 僣	② 于 (韻字:僣)
	⑲ 樓	⑱ 閭 (韻字:樓)
	⑳ 儒	⑮ 如 (韻字:儒)

《洪武正韻》魚韻의 각 小韻이 《古今韻會舉要》‘居’字母韻의 小韻에 대응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洪武正韻》魚韻	《古今韻會舉要》‘居’字母韻
① 魚 (韻字:虞)	第六韻(魚獨用)④魚, 第七韻(虞與模通)④虞
② 于 (韻字:余, 僣)	第六韻(魚獨用)⑰余, 第七韻(虞與模通)⑤于, 第七韻(虞與模通)⑱僣
③ 於 (韻字:紆)	第六韻(魚獨用)⑮於, 第七韻(虞與模通)⑯紆
④ 虛 (韻字:訃)	第六韻(魚獨用)⑯虛, 第七韻(虞與模通)⑰訃
⑤ 區 (韻字:墟)	第六韻(魚獨用)②墟, 第七韻(虞與模通)②區
⑥ 居 (韻字:拘)	第六韻(魚獨用)①居, 第七韻(虞與模通)①拘
⑦ 渠 (韻字:劬)	第六韻(魚獨用)③渠, 第七韻(虞與模通)③劬
⑧ 胥 (韻字:須)	第六韻(魚獨用)⑦胥, 第七韻(虞與模通)⑧須
⑨ 疽 (韻字:苴, 蒞, 諏)	第六韻(魚獨用)⑤苴, 第六韻(魚獨用)⑥疽, 第六韻(魚獨用)⑳蒞, 第七韻(虞與模通)⑥諏
⑩ 徐	第六韻(魚獨用)⑧徐
⑪ 書 (韻字:輸, 鈺)	第六韻(魚獨用)⑫書, 第七韻(虞與模通)⑬輸
⑫ 諸 (韻字:豬, 朱, 株)	第六韻(魚獨用)⑨諸, 第六韻(魚獨用)⑩豬, 第七韻(虞與模通)⑨朱, 第七韻(虞與模通)⑩株
⑬ 除 (韻字:廚)	第六韻(魚獨用)⑬除, 第七韻(虞與模通)⑭廚
⑭ 殊	第七韻(虞與模通)⑮殊

⑮ 如 (韻字:儒)	第六韻(魚獨用)⑮如, 第七韻(虞與模通)⑳儒
⑯ 柳	第六韻(魚獨用)⑭柳
⑰ 樞 (韻字:攄, 獬)	第六韻(魚獨用)⑪攄, 第七韻(虞與模通)⑪樞, 第七韻(虞與模通)⑫獬
⑱ 閭 (韻字:臚, 樓)	第六韻(魚獨用)⑱臚, 第七韻(虞與模通)⑱樓
⑲ 趨	第七韻(虞與模通)⑦趨

다음으로는 '孤'字母韻과 模韻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古今韻會舉要》'孤'字母韻		《洪武正韻》模韻
第六韻 (魚獨用)	① 初	⑱ 初
	② 蔬	⑳ 蔬
	③ 鉏	⑤ 徂 (韻字:鉏)
第七韻 (虞與模通)	① 孤	⑫ 孤
	② 枯	⑬ 枯
	③ 吾	⑮ 吾
	④ 都	⑦ 都
	⑤ 稌	⑧ 徒 (韻字:稌)
	⑥ 徒	⑧ 徒
	⑦ 奴	⑩ 奴
	⑧ 逋	③ 逋
	⑨ 鋪	② 鋪
	⑩ 蒲	⑥ 蒲
	⑪ 模	① 模
	⑫ 膚	⑳ 敷 (韻字:膚)
	⑬ 敷	⑳ 敷
	⑭ 扶	㉒ 扶
	⑮ 無	㉓ 無
	⑯ 租	④ 租
	⑰ 麤	⑯ 麤
	⑱ 蘇	⑱ 蘇
	⑲ 徂	⑤ 徂
	㉑ 芻	⑱ 初 (韻字:芻)
	㉒ 氈	氈(魚韻 第①書 小韻의 韻字)
	㉓ 雛	⑤ 徂 (韻字:雛)
	㉔ 烏	⑰ 烏
	㉕ 呼	⑭ 呼
	㉖ 胡	⑪ 胡
	㉗ 盧	⑨ 盧

《洪武正韻》模韻의 각 小韻이 《古今韻會舉要》'孤'字母韻의 小韻에 대응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洪武正韻》模韻	《古今韻會舉要》孤'字母韻
① 模	第七韻(虞與模通)①模
② 鋪	第七韻(虞與模通)⑨鋪
③ 逋	第七韻(虞與模通)⑧逋
④ 租 (韻字: 苴)	第七韻(虞與模通)⑩租
⑤ 徂 (韻字: 鉏, 雛)	第六韻(魚獨用)③鉏, 第七韻(虞與模通)⑨徂, 第七韻(虞與模通)②雛
⑥ 蒲	第七韻(虞與模通)⑩蒲
⑦ 都	第七韻(虞與模通)④都
⑧ 徒 (韻字: 徐)	第七韻(虞與模通)⑤徐, 第七韻(虞與模通)⑥徒
⑨ 盧	第七韻(虞與模通)⑥盧
⑩ 奴	第七韻(虞與模通)⑦奴
⑪ 胡	第七韻(虞與模通)⑤胡
⑫ 孤	第七韻(虞與模通)①孤
⑬ 枯	第七韻(虞與模通)②枯
⑭ 呼	第七韻(虞與模通)④呼
⑮ 吾	第七韻(虞與模通)③吾
⑯ 麤	第七韻(虞與模通)⑦麤
⑰ 烏 (韻字: 於)	第七韻(虞與模通)③烏
⑱ 蘇	第七韻(虞與模通)⑧蘇
⑲ 初 (韻字: 芻)	第六韻(魚獨用)①初, 第七韻(虞與模通)⑩芻
⑳ 蔬	第六韻(魚獨用)②蔬
㉑ 敷 (韻字: 膚)	第七韻(虞與模通)⑫膚, 第七韻(虞與模通)⑬敷
㉒ 扶	第七韻(虞與模通)⑭扶
㉓ 無	第七韻(虞與模通)⑮無

이상 4개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은 第六韻(魚獨用)에 20개 小韻, 第七韻(虞與模通)에 20개 小韻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40개의 '居'字母韻 小韻은 《洪武正韻》魚韻의 19개 小韻에서 혹은 동일한 小韻韻目字로, 혹은 각 小韻에 수록된 韻字로 빠짐없이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古今韻會舉要》의 '孤'字母韻은 第六韻(魚獨用)에 3개 小韻, 第七韻(虞與模通)에 26개 小韻으로 총 29개의 小韻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第七韻(虞與模通)의 21번째 小韻 '𪛗'자가 《洪武正韻》에서는 魚韻의 11번째 '書'小韻에 韻字로 수록된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외 없이 《洪武正韻》模韻의 23개 小韻에서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居'·'孤'字母韻과 魚·模韻 사이의 명확하고 정연한 대응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 결과로, 《古今韻會舉要》의 '孤'字母韻과 '居'字母韻의 분류 현

상을 《洪武正韻》의 魚·模韻 分立 현상과 音韻의 동일성으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증으로 사료된다.

일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古今韻會舉要》第六韻(魚獨用)에 수록된 ‘居’字母韻의 5번째 小韻 ‘苴’字는 《洪武正韻》魚韻의 9번째 ‘疽’小韻에 韻字로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模韻의 4번째 ‘租’小韻에도 韻字로 수록되어 있다. 第六韻(魚獨用) ‘居’字母韻의 15번째 小韻 ‘於’字도 《洪武正韻》에서는 魚韻의 3번째 ‘於’小韻뿐만 아니라 模韻의 17번째 ‘烏’小韻에도 韻字로 중복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복 수록 韻字는 《洪武正韻》의 異讀字(又音字) 수록 범위에 따른 결과일 뿐, 두 韻書 사이의 音韻體系 차이를 반영하는 예로 볼 수는 없다.

V. 結語

본고는 撮口呼의 표지인 音素 [y]의 형성 시기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中國語 語音 發展史에서 撮口呼 韻母가 형성된 시기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撮口呼의 형성 시기에 대한 역대 학계의 다양한 견해 중에는, 趙蔭棠(1936)과 王力(1985) 등에서 元代 《中原音韻》의 韻母體系를 撮口呼가 구비된 開·齊·合·撮의 四呼로 분류한 견해가 제기된 후, 陸志韋(1946) 金基石(2004, 2007) 등에서는 音素 [y]의 형성 시기를 清代 《五方元音》의 17세기경으로 추정하였고, 寧繼福(1985) 何九盈(1995) 등에서는 明末 《韻略易通》이 《中原音韻》의 魚模韻을 居魚韻과 呼模韻으로 분리한 사실을 근거로 音素 [y], 즉 撮口呼 형성의 명확한 증거로 간주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한편, 정영지(2004) 萬獻初(2011) 등은 明初 《洪武正韻》(1375)에서 魚韻과 模韻을 분류한 사실을 [y]와 [u]의 대립관계로 간주하여 撮口呼의 표지인 音素 [y]의 형성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撮口呼 音素 [y]의 형성 시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크게 14세기 초의 《中原音韻》, 14세기 중엽의 《洪武正韻》, 15세기의 《韻略易通》, 17세기의 《五方元音》 등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15세기 《韻略易通》에서 居魚韻과 呼模韻을 分立한 현상을 撮口呼 형성의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는 견해가 현행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

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제기된 견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洪武正韻》의 魚韻과 模韻 분류한 상황 이외에, 이보다 이른 시기의 《古今韻會舉要》에 반영된 ‘居’字母韻과 ‘孤’字母韻 분류 현상이 撮口呼의 형성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小韻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切韻系韻書에 반영된 中古漢語의 魚·虞·模 세 韻部로부터 《古今韻會舉要》·《中原音韻》·《洪武正韻》·《韻略易通》 등 近代漢語 韻書의 魚韻·虞(模)韻과 魚模韻, 居魚·呼模韻 등의 韻部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古今韻會舉要》와 《洪武正韻》의 小韻과 韻字 수록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音素 [y]의 형성 기제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古今韻會舉要》의 第六韻(魚獨用)과 第七韻(虞與模通) 두 韻部에서 ‘居’字母韻과 ‘孤’字母韻으로 서로 교차하며 韻類를 구분한 사실에 착안하여, ‘居’·‘孤’字母韻과 《洪武正韻》의 魚·模韻에 수록된 전체 小韻과 韻字의 배열 상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撮口呼 音素 [y]의 형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에 수록된 전체 40개 小韻과 《洪武正韻》 魚韻의 전체 19개 小韻은 예외 없이 정연한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孤’字母韻 총 29개의 小韻 중에서도 ‘氈’小韻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小韻은 모두 模韻의 23개 小韻에서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居’·‘孤’字母韻과 魚·模韻 사이의 명확하고 정연한 대응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본고에서 검증한 《古今韻會舉要》 ‘居’·‘孤’字母韻과 《洪武正韻》 魚·模韻 사이의 대응관계에 근거하면, 撮口呼의 형성 시기에 대한 현행 학계의 대다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15세기 중엽의 《韻略易通》 居魚韻과 呼模韻 分立이 撮口呼의 분류를 반영하고 있는 근거임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이보다 이른 시기인 《古今韻會舉要》(1297)의 ‘居’字母韻과 《洪武正韻》(1375)의 魚韻의 分立은 撮口呼의 형성을 반영하는 근거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中國語 語音 發展史에서 撮口呼 韻母가 형성된 가장 이른 시기와 문헌적 근거는 13세기 말엽 《古今韻會舉要》의 ‘居’字母韻 분류 현상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 曲曉雲(2014), 〈撮口呼形成小攷〉, 《中國言語研究》第50輯.
- 구현아(2013), 〈近代漢語의 脣音字 介音의 開合口 대립 연구〉, 《중국어문학회지》第43輯.
- 권영실(2009), 〈표준중국어 개음(介音)의 음성적 특징에 대한 한·중 대조연구〉, 《중국어교육과연구》第10輯.
- 권혁준(2004), 〈近古漢語 聲母 疑·魚·喻母의 大립 문제〉, 《중국어문논총》第26輯.
- 金基石(2004), 〈近代音의 熱點問題與朝鮮對音文獻의 價値〉, 《延邊大學學報》2004年第6期.
- 金基石(2007), 〈漢語y韻母與朝鮮文獻의 對音〉, 《民族語文》2007年第1期.
- 김태완(2004), 〈《音韻闡微》의 音韻 體系와 清代 官話〉, 《중국인문과학》第28輯.
- 寧繼福(1985), 《中原音韻表稿》,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唐作藩(1987), 《音韻學教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年 7月, 第二版).
- 羅常培(1949), 《漢語音韻學導論》(原刊於 1949年 北京大學出版社), 臺北: 里仁書局, 1982年, 初版.
- 萬獻初(2011), 〈撮口呼形成、發展與應用的 歷時進程〉, 《勵耘學刊(語言卷)》2011年第1期.
- 모정열(2016), 〈한국사회에 유입된 한자 음역어의 시기별 유입과정 분석〉, 《국제언어문학》第34輯.
- 楊耐思(1981), 《中原音韻音系》,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엄익상(2012), 《중국어 음운론과 응용》, 서울: 한국문화사.
- 여병창(2012), 〈韓國 漢字音 終聲과 漢語 韻尾 比較 考察〉, 《외국학연구》第19輯.
- 葉寶奎(2001), 《明清官話音系》,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 오광근(2009), 〈한국어 교재의 발음기호 제시 현황과 문제점〉, 《泮橋語文研究》第26輯.
- 오광근(2012), 〈한국어 교재의 발음기호 제시 방법 고찰〉, 《泮橋語文研究》第32輯.
- 王力(1936), 《漢語音韻學》(原名《中國音韻學》, 1936年, 上海商務印書館), 《王力文集》第4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6年 第1版.
- 王力(1955), 《漢語講話》, 1955. (《王力文集》第三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5年 第1版).
- 王力(1958), 《漢語史稿》(原刊 北京: 科學出版社, 1958年), 《王力文集》第9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8年 第1版.
- 王力(1979), 〈現代漢語語音分析中的幾個問題〉, 《中國語文》1979年第4期.
- 王力(1980), 〈漢語語音的系統性及其發展的規律性(下)〉, 《社會科學戰線》, 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 1980年第2期.

- 王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王力文集》第10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7年 第1版).
- 尤敦明(1983), 〈[ong]和[iong]的歸類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3年01期.
- 尤敦明(1985), 〈漢語拼音方案中[iou] [uei] [uen]的“丟音”現象給語音教學帶來的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5年第2期.
- 陸志韋(1946), 〈釋《中原音韻》〉, 《燕京學報》第31期, 1946 (《陸志韋近代漢語音韻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1988).
- 陸志韋(1947), 〈記蘭茂《韻略易通》〉, 《燕京學報》第32期, 1947 (《陸志韋近代漢語音韻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1988).
- 이경철(2009), 〈中古漢語 撮口呼의 音韻 再考: 韓日漢字音의 例를 中心으로〉, 《일본연구》第40輯.
- 李新魁(1986), 《漢語音韻學》, 北京: 北京出版社.
- 이해우(2003), 〈현대 중국어 개음의 성격과 표기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第25輯.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 임동석(1991), 〈漢語에 있어서의 ‘四呼’와 介音에 依한 音韻 變化 研究〉, 《건대학술지》35집.
- 林燕慧(앤후린) 저, 엄익상 등 역(2010), 《중국어 말소리》, 서울: 도서출판 역락.
- 張建侃(1958), 〈ü怎樣教〉, 《文字改革》1958年13期.
- 章炳麟(1936), 《小學略說》, 1936 (《梁啓超·章太炎解讀中華文化經典》, 沈陽: 遼海出版社, 2003).
- 정영지(2004), 〈四呼의 名稱考〉, 《언어과학연구》30집.
- 趙錦華(2011), 〈蘭茂《韻略易通》韻母系統研究(一)〉, 《咸寧學院學報》, 咸寧: 湖北科技學院, 第31卷 第1期.
- 趙蔭棠(1936), 《中原音韻研究》, 上海: 商務印書館, 初版.
- 주성일(2008), 〈조선시대 학습용 중국어와 明代 官話의 성질〉, 《中國文學研究》第36輯.
- 주성일(2011),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中國文學研究》第42輯.
- 최영애(2008), 《중국어란 무엇인가》, 서울: 통나무, 초판, 1998 / 개정증보판.
- 竺家寧(1986), 《古今韻會舉要的語音系統》, 臺北: 臺灣學生書局.
- 何九盈(2000), 《中國古代語言學史》, 開封: 河南人民出版社, 第1版, 1985 /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第2版.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Cuokou-Hu', also referred to as the 'Phoneme [y]', and derive a rational conclusion as to when and in which document the 'Phoneme [y]' was first formed.

Previous studies generally recognize the separation of Ju-Yu Rhyme and Hu-Mo Rhyme categories reflected in *Yunlüeyitong*, during the midst of the 15th century, as substantial evidence for the formation of the 'Phoneme [y]'. Besides this general theory, others suggest that the Dong-Zhong Rhyme category's [yŋ], Jiang-Yang Rhyme category's [yaŋ], Yu-Mo Rhyme category's [y], Zhen-Wen Rhyme category's [yn], Xian-Tian Rhyme category's [yɛn], Che-Zhe Rhyme category's [yɛ], Geng-Qing Rhyme category's [yŋ(yəŋ)], etc. reflected in *Zhongyuanyinyun* in the early 14th century or the rhyme categories system reflected in *Wufangyuanyin* in the midst of the 17th century are also evidence of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honeme [y]'.

In other words, academic circles are not in mutual consensus on when the 'Phoneme [y]' was actually first formed. This study develops the analyses of previous studies to suggest a new theory on when the 'Phoneme [y]' was formed through an in-depth phonological analysis of the separation of Ju Zimuyun and Gu Zimuyun reflected in *Gujinyunhuijuyao* in the late 13th century. It thoroughly reviews the Xiaoyuns as described in Ju Zimuyun and Gu Zimuyun of *Gujinyunhuijuyao*, using the Xiaoyuns as described in the Yu Rhyme and Mo Rhyme categories of *Hongwuzhengyun* as a comparative referenc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new evidence for

when the 'Phoneme [y]' was formed, unprecedented in previous studies. Thus, the separation of Ju Zimuyun and Gu Zimuyun reflected in *Gujinyunhuijuyao* in the early 13th century represents the earliest documented evidence of the formation of the 'Phoneme [y]', also referred to as 'Cuokou-Hu'.

【主題語】

근대한어, 운서, 촬구호, 사호, 음소[y], 홍무정운, 고금운회거요

近代漢語, 韻書, 撮口呼, 四呼, 音素 [y], 洪武正韻, 古今韻會舉要

Early Modern Chinese, Rhyming Dictionary, Cuokou-Hu, Si-Hu, Phoneme [y], *Hongwuzhengyun*, *Gujinyunhuijuyao*

투고일: 2017. 01. 14 / 심사일: 2017. 01. 20 ~ 02.14 / 게재확정일: 2017. 02. 16